

정조대 왕위 계승의 상징적 재현 〈文孝世子輔養廳契屏〉(1784)을 중심으로

유재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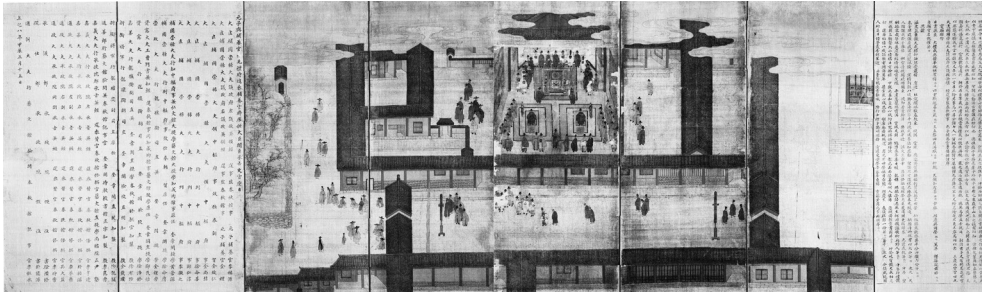
- I. 서론
- II. 원자 보양관 상견례의 배경과 의미
- III. 序文과 聯詩를 통해본 제작 동기
- IV. 보양관 상견례의 의례와 재현: 사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 V. 배경 공간의 상징성: 왕실과 백성에게까지 미치다
- VI. 결론

I. 서론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1784년 1월 15일, 정조의 첫 아들인 文孝世子(1782-1786)가 輔養官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는 相見禮를 그린 병풍이다(도 1). 본래 상견례라는 의례는 병풍을 제작하여 기념하기에는 의례의 격이나 참여자의 규모가 모두 대단히 소략한 축에 속한다. 보양관 상견례를 그린 궁중행사도로는 이것이 유일한 것도 이 때문이다.¹ 이는 이 계병의 제작이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황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홍익대학교

¹ 왕세자와 관련한 궁중행사도와 반차도에 대한 연구가 일찍이 이루어진 바 있다. 박은순, 「朝鮮時代 王世子冊禮儀 軌班次圖 研究」, 『한국문화』 14 (1993), pp. 553-612; 박정혜, 「조선시대 왕세자와 궁중기록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005), pp. 10-52; 황정연, 「受敎圖로 본 조선시대 왕세자의 冠禮와 행사기록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p. 128-150.



도 1 <文孝世子輔養廳契屏>, 1784년, 8첩 병풍, 견본채색, 각 첩 136.5×57.0cm, 국립중앙박물관.

이 계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으로 궁중행사도 일괄 조사를 통해 비교적 최근에 공개되었고, 그와 함께 첫 연구가 발표되었다.² 이 연구는 계병의 제작 시기와 행사 내용을 처음 밝혀내었으며, 그 제작 의도를 “보양청에서 함께 행사를 준비했던 관료들이 이 행사를 오래도록 기념하고자 병풍을 제작하였다”고 추측하였다.³ 보양관 이복원이 서문을 썼으며, 8건을 제작하여 1건은 보양청에 보관하였으니 이 계병의 제작에 보양청이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실제로 이 계병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보양청 관원이 아닌 정 1품 대신들이다. 대신 중에는 당시 좌의정, 우의정을 겸직하였던 보양관 李福源(1719-1792)과 金燧(1723-1790)이 포함되었지만 나머지 5명은 보양청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즉 일반적인 계병의 관례를 따라 행사를 준비한 관청(여기서는 보양청) 차원에서 관원들의 유대감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⁴ 세자 보육이



도 2 <文孝世子輔養廳契屏>, 제4첩의 大臣 부분.

²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도 6 참조. 민길홍, 「<文孝世子 輔養廳契屏>-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행사」, 『미술자료』 80 (2011), pp.97-112. 본래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목록에 전해오던 제목은 “이복원상견례병풍”이나, 2011년의 도록부터 “문효세자보양청계병”으로 명명되었다. 병풍의 서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李福源의 『雙溪遺稿』에 『輔養廳契屏序』라는 서문의 제목에 근거한 것이다.

³ 민길홍, 위의 논문, p. 106.

⁴ 조선시대 궁중행사도의 제작 동기와 시기별 제작 양태에 대해서는 박정혜,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p. 4-9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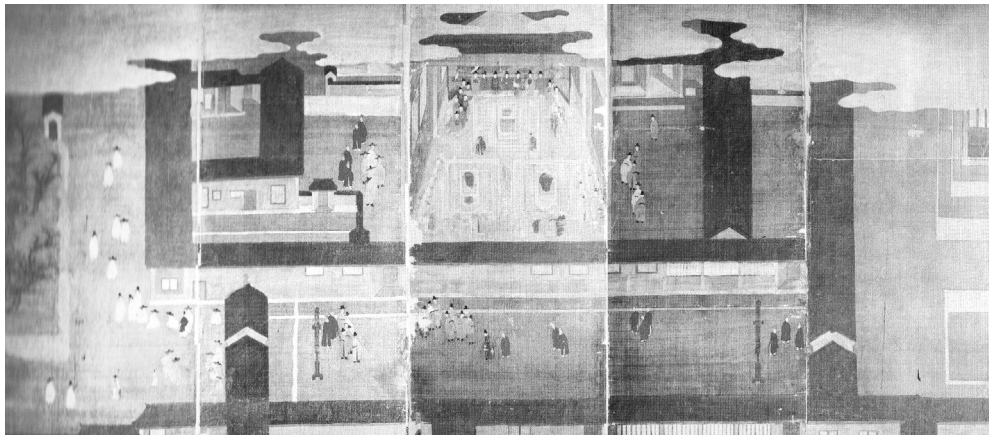
라는 보양청의 일반적인 기능에 주목한 선행 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7명의 대신들이 관여하게 된 특별한 정치적 정황에 중점을 두겠다.

계병의 제작 배경만큼이나 특이한 것은 회화적 특징이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다른 궁중행사도에 비해 인물이 크고 개성 있게 표현되었다(도 2). 행사 밖 인물은 다양한 동작과 복장으로



도 3 <문효세자보양청계병>, 제6첩의 風俗 장면.

풍속화적인 면모마저 보여준다(도 3). 궁중기록화에는 이례적으로 배경 기법이 전면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필력이 뛰어나고 세심하다(도 4).⁵ 기록화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간략하고 경직된 인물 묘사, 관습적인 구도와 배경, 마무리가 덜 된 필체를 여기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예외적인 것은 이 뿐이 아니다. 북쪽을 상단에 두는 대부분의 기록화와 달리 이 그림은 동쪽을 상단으로 두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잘 지적하였으면서도 “구도와 인물표현법이 독특한 특징”을 지닌



도 4 <문효세자보양청계병>, 뒷면 배제.

5 배제기법은 <기축진찬도>(1829)를 비롯한 19세기의 궁중행사도에서는 종종 발견되지 않지만 <문효세자보양청계병>처럼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유혜선·장연희·윤은영, 『<기축진찬도> 채색안료분석』,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 (국립중앙박물관, 2010), pp. 187-225; 천주현·윤은영·안지운·김효지,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의 채색기법』,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 186-201.

다고 정리하였을 뿐 이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⁶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정품 대신들은 이처럼 소략한 상견례 행사를 화려하고 이례적인 계병으로 제작하게 되었을까.

본 논문에서는 이 계병의 제작이 대신들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왕 정조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 가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불안한 정국에서 안전한 왕위 계승과 세자의 위상강화를 위해 정조가 계획한 일련의 정책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책 가운데 보양관 상견례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겠다. 이어서 병풍의 서문과 대신들의 시를 분석하고 상견례 당일의 기록을 통해 대신들이 이 병풍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회화적으로는 행사도의 관례를 따르는 상견례 장면과 풍속적인 성격이 강한 그 밖의 장면으로 나누고 이러한 이중 구도가 가지는 의미를 이 병풍의 내용과 연관하여 해석하겠다.

II. 원자 보양관 상견례의 배경과 의미

문효세자는 1782년 9월 7일에 탄생하였다.⁷ 정조와 宜嬪成氏(?-1786)와의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이었다. 문효세자는 정식 비빈의 소생이 아니었지만, 태어난 지 3개월도 채 안되어 임금의 만아 들임을 인정받는 원자로 정호되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보양관 상견례가 치러졌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문효세자가 태어난 직후 서둘러 원자로 추대된 데에는 徐命善(1728-1791)을 비롯한 少論 대신들의 역할이 컸다. 11월 27일, 영조를 세실로 삼게 되었음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대신들은 정조에게 새로 태어난 왕자의 元子 定號를 종용하였다.⁸ 정조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만류하였으나 서명선은 “요즘의 國勢와 人心으로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면서 재촉하였다. 김익은 영조를 세실로 공표하는 자리이니 의미가 각별할 것이라고 거들었고,⁹ 결국 그 날, 그 자리에서 급하게 원자 정호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신들은 다시 수차례의 상소를 올려 결국 탄생 2년 만에 세자 책봉을

6 민길홍, 앞의 논문, pp. 102-106.

7 『정조실록』 권14 정조 6년(1782) 9월 7일(신축).

8 『정조실록』 권14 정조 6년(1782) 11월 27일(경신).

9 위의 글, “(전략)命善曰, 惜福之教, 甚盛甚盛, 臣等豈不仰體, 而惜福之道, 不在於名號之定與不定, 誕生之初, 名號已先有歸矣. 既荷上天之眷佑, 可見百福之來護, 早定名位, 上告下布, 然後國勢可以永固, 人民可以有係矣.(중략) 燧曰, 今日臨殿, 既舉世室之禮, 又定元子之號, 實是東方莫大之慶也”

성사시켰다.¹⁰ 대신들이 서두른 이유는 무엇이며, 서명선이 말한 “국세와 인심”이란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까.

문효세자 탄생 전후의 정국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조정에는 洪國榮(1748-1781)과 그의 측근인 宋德相(1710-1783)과 관련된 역모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서명선, 鄭民始(1745-1800) 등의 소론과 金鍾秀(1728-1799) 등의 老論 南黨은 권력을 독점하던 흥국영을 퇴거시키는 데는 뜻을 모았으나, 그가 물러난 이후에는 서로를 역모 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하고, 정권을 주도하려고 하였다.¹¹ 이러한 정황을 두고 볼 때, 소론 대신들이 집요하게 원자 추대를 요구한 것은 흥국영이 물러난 권력의 공백기에, 세자를 통해 입지를 선점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신들의 요구에 대해 정조는 반대하며, 원자정호를 최대한 미루고자 하였다. 정조가 이유로 든 것은 ‘복을 아끼려는 마음(惜福之心)’, 즉 소중할수록 삼가고 신중히 하는 마음이었다.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왕자의 출신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도 작용하였다. 문효세자의 생모였던 의빈성씨는 혜경궁을 모시던 낮은 직분의 궁녀로서 왕자를 생산한 후에도 한동안 후궁의 位號를 받지 못했다.¹² 그에 비해 정식 후궁으로 책봉되었던 和嬪尹氏(미상-1824)는 당시 산기가 있어 산실청이 설치되어 있었다. 결국 화빈은 출산하지 못했지만 산실청은 20개월 가까이 유지되었다. 정조가 문효세자가 탄생한 이후에도 화빈의 왕자 생산에 미련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원자 정호가 성사되자 정조는 원자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첫 번째로 원자 보양관에 좌의정과 우의정을 임명한 것을 들 수 있다. 원자의 보양관으로 정1품 정승을 임명한 것은 조선시대 걸쳐 유일한 사례이다.¹³ 숙대전의 “元子の 보양관 3인은 정1품 이하 중2품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상 정1품 대신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¹⁴ 그러나 실제로는 한 번도 현직 정승이 원자 보양관을 겸임한 적은 없었다.¹⁵ 정조는 직접 좌의정 이복원과 우

¹⁰ 탄생 3개월째 원자 칭호를 정호한 날부터 이미 책봉에 대한 상소가 계속되었다. 『일성록』 정조 6년(1782) 11월 27일(경신). 책봉 기록은 『정조실록』 권18 정조 8년(1784) 7월 2일(을묘) 참조.

¹¹ 최성환,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 133-166.

¹² 宮人 成氏는 원자 정호 이후, 昭容成氏로 올려졌으며, 세자 책봉이후 宜嬪成氏로 올려졌다. 『정조실록』 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경인); 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경진).

¹³ 중종13년(1518) 중종은 처음 보양관을 임명할 때, 삼정승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이 많은 大臣 대신에 젊고 바른 신비가 가까워서 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그보다 품계가 낮은 정 2품과 중 2품의 관리 2명이 겸직하게 되었다. 『중종실록』 권35 중종 13년(1518) 12월 26일(신묘); 권36 중종 14년(1519) 8월 10일(신미).

¹⁴ 『續大典』「吏典補」京官職: 『국역숙대전』(법제처, 1965), pp. 66-67.

¹⁵ 정조는 이후 두 번째 원자, 순조의 보양관을 책봉할 때에는 대신이 ‘원자의 사부는 정 2품으로 임명하는 것이 先祖 때부터 정해 놓은 규례’라고 하자, 이 말에 따랐다. 당시 3품이었던 宋煥箕(1728-1807)를 2품으로 승계시켜 보양관에 임명하였다.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1796) 12월 1일(임신).

의정 김익을 선택하였다.¹⁶ 이들은 정조와 동궁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이자 소론과 노론의 실세로서 정조가 대신의 균형 잡힌 지지를 특별히 설계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⁷

두 번째로 정조는 상견례에 시임·원임 대신을 참석시켰다. 원자와 보양관 상견례는 본래 보양청 관원과 원자를 보위하는 내시가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서 대신이 참석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¹⁸ 그런데 정조는 상견례를 “大禮”라고 규정하며, 시·원임 대신과 각신, 승지 모두 참석할 것을 명하였다.¹⁹ 결국 상견례는 국왕이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시 실권자들이 모두 참석한 명실상부 ‘대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세 번째로 戴恩院에서의 상견례가 끝난 후 정조는 重熙堂에 친림하여 신하들을 만났다. 대신들은 경축의 陳賀禮를 올렸고, 정조는 공로자에게 전례 없는 상을 내렸다.²⁰ 이는 정조가 세자를 위해 새로 건설한 중희당에서의 첫 행사였다.²¹ 중희당이 본래 상견례의 장소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²² 원자가 참석한 대은원의 상견례와 정조가 친림한 중희당의 진하례는 사실상 하나의 의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조는 상견례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희당에서 직접 대신들을 소견함으로써 상견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16 정조겸이 보양관에 대해 숙종과 영조대의 관례에 의거해 正卿(정2품이상 관원)을 추천하자 정조는 더 높은 품계의 관리를 비정해 올리라고 종용하였다.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1783)8월 27일(병술). 3개월 뒤 정조겸이 정 1품 原任 大臣이 좋겠다고 하자, 정조는 시임이나 원임을 가릴 것이 아니라면서, 그 자리에서 현직 좌의정과 우의정을 천거하였다.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1783)11월 18일(을사).

17 보양관이라는 직책이 미래 국왕의 사부가 된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당색과 학식을 고려하여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현일은 영남 남인으로서 경기 남인 위주의 보양관 임명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pp. 87-89.

18 『景慕宮輔養廳日記』(奎12836) 乙卯년(1735) 9월 11일자. 영조11년(1735) 敬極堂에서 실시한 사도세자의 보양관 상견례의 경우, 보양관과 보양청 관원, 원자를 보위하는 내시만이 참석하였을 뿐 다른 신하들의 참석은 없었다.

19 『일성록』 정조 7년(1783) 12월 8일(일축); 12월 9일(병인).

20 『승정원일기』 정조 8년(1783) 1월 15일(신축). “今番賞典, 既皆拔例爲之.” 보양관의 자제는 童蒙敎官으로 등용하고, 보양청 관원은 承傳하였으며 원자를 보필한 中官에게도 말을 지급하였다. 정조가 스스로 일렀듯이 상견례로는 전례에 없는 큰 상전이였다.

21 중희당에 대해서는 이강근, 『조선왕조의 궁궐건축과 정치-세자궁의 변천을 중심으로』, 『미술사학』 22(2008), pp. 244-246 참조.

22 『일성록』 정조7년(1783) 12월 4일(신유). 『(문효세자)보양청일기』(규 12819), 甲辰(1783) 正月 十五日條. 애초에 상견례의 실행을 편전에서 하라고 하였는데, 문백상 편전은 중희당으로 해석된다. 대은원은 함께 조성된 내만원의 기능과 그 주변에 있는 행각-소주방, 등축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내시들이 거처하거나 왕실의 살림에 관계된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은원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작은 건물로 당시 행사의 규모와 중요도로 볼 때 비좁고 궁벽한 건물이다. 중희당 대신 대은원에서 상견례를 설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조가 언급한 “惜福之心”이 상견례의 장소로 이 건물을 택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이처럼 문효세자 탄생 직후에는 세자를 통해 입지를 다지려는 대신들과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위해 적법한 기회를 기다리고자 했던 정조의 입장이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원자가 정해지자 정조는 왕위 세습을 위한 절차를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 대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원자의 보양관 상견례는 순조로운 왕권 계승을 바라는 군주와 이 과정에서 공로를 선점하려는 대신들의 문제의식이 만나 극대화된 상징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III. 序文과 聯詩를 통해본 제작 동기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은 제1첩에 보양관 李福源(1719-1792)이 쓴 서문과 제7-8첩에 상견례 행사에 참여한 신하 25명의 좌목이 있어 계병을 제작한 동기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서문의 중요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겠다(도 5).

序文

순상(정조) 8년(1784) 정월辛丑(15일)에 우리 원자와 보양관 臣 福源, 臣 이 상견례를 행했는데, 대신과 규장각 신하들도 명을 받아 함께 들어갔다. 상견례가 끝나자 상께서 당에 남시었고, 여러 대신도 나아가 축하드렸다. 빈청에 물러나 설 때, 궁중의 하인들이 음식상을 가져와서 대접했다. 즐거워서 말하기를,

“오늘 경사가 세 가지 있다.²³ 三寶이 세자를 가르칠 때, 반드시 禮樂으로 가르치고 반드시 師保를 두었다.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와 왕위를 이을 후사를 두터이 낳았다. 삼왕의 교육은 어린 나이에 실시하는데, 사보의 설치는 보양관으로부터 비롯되고, 예악의 만듦은 상견례로부터 시작된다.(중략)



도 5 〈문효세자보양청계병〉, 제1첩 序文 부분.

23 “오늘의 세 가지 경사”는 뒤의 문장으로 볼 때, 문효세자의 탄생, 보양청의 설치, 보양관 상견례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디어 七言四韻詩를 聯句로 짓고, 또 그 시에 각각 한 수씩 次韻하여 지어, 그 일을 불러 그 일을 그리게 하여 병풍 여덟 개를 만들어 일곱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하나는 輔養廳에 둔다. 諸公의 부탁으로 福源이 서문을 쓰다. 시로는 부족하여 또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도 부족하여 또 서문을 쓰는 것은 세 경사를 기록하여 대대로 전하는 보물로 삼으려 함이다.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원자 보양관 이복원이 삼가 쓰다.²⁴

이 서문의 초반부는 상견례와 그 이후 대신들의 모임에 대해 전한다. 대신들은 이날 대은원에서 상견례에 참석하였고, 상견례가 끝나자 중희당에서 정조에게 진하례를 올렸다. 이후 대신들은 賓廳으로 물러났는데, ‘궁중의 하인들이 음식상을 가져와서 대접했다’는 구절은 정조가 대신들에게 宣饌을 하사한 사실을 일컫는다.

서문의 마지막은 이 날의 경사를 시와 그림, 그리고 서문으로 남기는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때 시를 남긴 사람은 빈청에 모인 보양관 이복원과 김익 2명을 포함해 서명선, 金致仁(1716-1790), 金尙喆(1712-1791), 鄭弘淳(1720-1784), 李徽之(1715-1785) 등 7명의 정 1품 대신들이다. 계병의 서문 뒤에는 이날 지은 “賓廳聯句”와 7편의 次韻詩가 덧붙여 있다. 빈청연구는 서명선이 2구, 나머지 6명이 각각 한 구씩을 보태어 모두 8구의 七言律詩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운을 차운하여 7명이 모두 하나씩 7개의 율시를 추가로 지었다. 이 중 “빈청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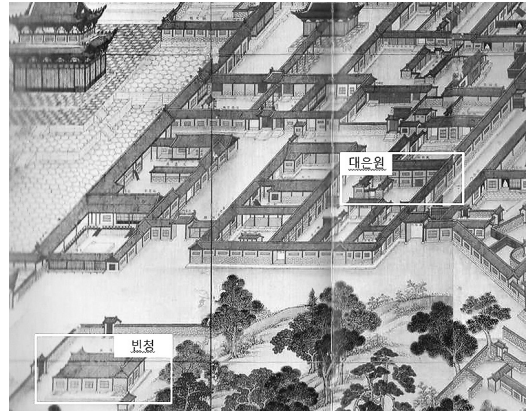
빈청연구	賓廳聯句
日辰이 좋아 大禮를 무사히 치렀으니	日吉辰良大禮成
만수무강 華祝이 못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네	無疆華祝群情命善
四重歌가 울리니 궁전 동산에 봄이 생동하고	四重歌起春生苑致仁
보름달이 돌아오니 달빛이 성 안에 가득 하네	三五節回月滿城尙喆
임금의 용안 우러러보니 기쁨이 있음을 알겠고	仰觀天顏知有喜弘淳
다행히 나라의 경사에 참여하여 영광을 함께 하네	幸參邦慶與同榮徽之

²⁴ 원문과 번역은 『궁중기록화연구 II』(국립중앙박물관, 2011), p. 170 참조.

만년토록 이어질 상서가 여기서 비롯되는데
스스로 관명을 돌아보니
부끄럽고도 두렵네.²⁵

萬年祥從茲始福源
自顧官名愧懼并

“賓廳”이란 이날 대신들이 연회를 가진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상시 비변사 당상 이상의 1품 관리들이 회의하는 곳이기도 하다(도 6).²⁶ 즉 “빈청연구”는 이날 선찬이 베풀어진 빈청에서 지은 시를 의미하는 동시에 1품 대신들이 함께 연이어 지은 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시의 첫 두 구는 상견례가 무사히 치러짐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3구와 4구는 정월 보름, 상견례의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원자[春生苑]와 국왕[月滿成]을 암시하고 있다. 5구와 6구는 이 행사가 미치는 바를 노래하였는데, 임금에게는 기쁨이요, 신하에게는 영광이며, 온 나라에는 경사라고 하였다. 7구와 8구는 두 보양관이 지었는데, 얼마 전에 국조보감의 찬집을 주도하여 완성하였던 이복원은 보감의 상서로움을 원자의 탄생과 연결 지었으며,²⁷ 김익은 보양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7명이 돌아가며 지은 시이지만, 마치 한 사람이 기획한 것처럼 상견례의 의미와 인물, 배경이 고루 명시되었다.



도 6 <東闕圖>, 1828년, 견본채색, 각 45.5×36.5cm, 총 273×576cm, 고려대학교박물관, 대은원, 중희당, 빈청 부분.

빈청연구의 이러한 내용은 7편의 차운시에서 반복되고 증폭된다.²⁸ 빈청연구에서 차운된韻은 “成, 情, 城, 榮, 并”의 다섯 글자이다. 이들 7편의 시는 서로 조금씩 다른 내용을 지녔지만, 차운의 결과, ‘상견례의 성거와 원자의 성장[成]이 더없이 기쁘다[靑], 이는 궁성 안의 경사요[城],

25 위의 책, pp.170-171. 수정 후 인용.

26 賓廳은 삼정승과 당상관 이상을 일컫기도 하며, 시원임 대신을 일컫기도 한다. 정조실록에는 시원임대신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그 한 예로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1778) 2월 25일(병진) 등이 있다.

27 이복원은 서명선과 함께 國朝寶鑑 찬집을 주관하였다. 『정조실록』 권14 정조 6년(1782) 11월 24일(정사).

28 7편의 차운시는 『궁중기록화연구』 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171-172.

신하들에게는 영광[榮]이니, 이 기쁨을 국왕과 원자, 군신과 백성이 모두 함께한다[并]는 내용을 반복하게 되었다. 聯句과 次韻은 중창이나 변주곡과 같이 여럿이 함께 시를 조직하고, 또 같은 내용을 변화를 주어 반복함으로써, 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우선 빈청에 모인 참가자들이 그 첫 번째 독자가 될 것이다. 이는 연구와 차운시들이 비슷한 내용을 이루며 서로 공명하는 것을 보이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시들은 국왕 정조를 독자로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상 왕실의 번영과 신하된 영광을 노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자를 표기한 형식에서도 字와 號가 아니라 성을 떼고 이름만 표기한 것이 그렇다. 김익의 문집에는 같은 내용의 “빈청연구”가 전하는데, 저자의 이름 앞에, “臣 命善”, “臣 致仁”처럼 “臣”자가 표기되어 국왕을 독자로 하였음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²⁹ 즉 “빈청연구”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짓고 참석자들끼리만 돌려본 것이 아니라 이 후 국왕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높다.³⁰

이처럼 대신들의 시는 그 내용과 형식이 모두 국왕을 향하고 있다. 이는 이 병풍의 제작 방식과도 관계가 있다. 다시 서문으로 돌아오면, 화공을 불러 8개의 병풍을 제작하여 하나는 보양청에 두고 나머지는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고 하였다. 상견례를 준비한 관청이 보양청이라는 점과 보양청에 한 좌를 보관했다는 기록을 통해 보양청에서 병풍 제작을 주관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행사가 끝난 후에 주무 관청에서 공금으로 계병을 제작한 전례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양청계병은 보양청에서 제작하였으되 보양관외에 보양청의 실무 관리들, 즉 서리나 서사, 사령 등은 받지 못했다. 이를 나누어 가진 사람은 빈청, 즉 1품 대신이다. 다시 말해 제작은 보양청 공금으로 하였으나 발의하고 분급 받은 사람은 대신들인 것이다.

이들 대신들은 원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을 가졌으며 정치적 당색은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1782년 당시 영의정이었던 서명선은 원자 책봉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다.³¹ 당시 서명선과 함께 정조에게 책봉을 종용하였던 좌의정 이복원과 우의정 김익이 원자 보양관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원자가 책봉된 이듬해에는 세자 책봉에 대한 상소가 거듭 올라왔다. 1783년 11월 18일에는 시원임 대신 전원이 임금을 특별히 뵈기를 청하여(請對) 이 사안을 제

²⁹ 金燾, 『竹下集』卷四 “賓廳聯句詩”

³⁰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御製를 내리고 신하로 하여금 이에 차운하거나 연구를 지어 올리게 하는 일은 영조 연간 종종 행해졌다. 정조 역시 문효세자의 책봉과 세자와 시강원 사부의 상견례가 있을 후, 연구를 지어 올리게 한 기록이 전해진다. 『승정원일기』 1564책 정조8년(1784) 8월 10일(계사).

³¹ 『일성록』 정조 6년(1782) 11월 27일(경신).

기하였다. 이 때 자리했던 인물들이 김상철, 鄭存謙(1722-1794), 서명선, 정홍순, 이휘지, 이복원이다. 이들은 정존겸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견례 계병에 참석한 대신들이다.³²

계병에 이름을 올린 7명 중 대부분은 소론에 속하나 당색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서명선을 필두로 김상철, 정홍순, 이휘지, 이복원 등이 소론에 해당하나, 보양관 김익을 비롯해 김치인은 노론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효세자의 추대에 대해 당파마다 의견을 달리한 것은 아니며, 당시 소론이 정권을 주도하던 상황이었기에 소론의 비율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계병을 제작하여 나누어 가진 대신들은 문효세자의 원자와 세자 책봉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양청에서는 어떻게 대신들을 위해 이렇게 화려한 병풍을 제작할 공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당시 보양청은 원자의 곁이 아니라 규장각 이문원 안에 설치되었다. 즉 보양청은 형식적으로는 시강원-예조에 소속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장각의 관할에 있었다. 이는 정조가 이 병풍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이 병풍은 대신들이 발의하였는데 그들은 개인이나 한 관청의 관리가 아니라 신하의 대표자로서 국가적인 문제에 발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왕은 대신들이 발의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보양청을 통해 그들에게 병풍을 하사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계병은 상견례에 대한 참석자의 기념물일 뿐 아니라 군신간의 공조를 확인하는 징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IV. 보양관 상견례의 의례와 재현: 사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은 제2첩부터 제6첩까지 총 다섯 첩이 그림에 할애되었다. 다섯 첩을 연결된 하나의 화면으로 사용하였는데, 병풍의 중심에 대은원의 상견례 장면(제4첩 상단)을 두고 그 좌우로 이를 둘러싼 전각(2-3첩, 5-6첩)을 배경으로 배치하였다. 중심의 의례 장면과 주변 전각 배경은 내용이나 표현 모두에서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상견례 행

³² 이들 중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존겸은 상견례 당시 병세가 깊어져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다. 『일성록』 1783년 1월 5일(신묘). 한편 청대하지 않은 대신 중에서 계병에 이름을 올린 김치인은 봉조하로서 상견례에는 참석하였으나 정세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며, 김익은 병세로 잠시 물러나 있다가 보양관에 차정되어 다시 복귀하였다. 『일성록』 1783년 11월 14일(신축).

사의 기록과 대조하여 대은원 의례 장면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원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의식은 기본적으로 왕세자가 스승을 뵈는 의식을 따른다.³³ 이 의식은 왕세자가 스승을 처음 맞는 단순한 절차이지만 지위가 낮은 스승이 왕세자보다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례적 상징성이 크다. 왕세자는 미래의 군왕이기 때문에 위계적으로 국왕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³⁴ 그러나 왕세자와 스승의 관한 의식에서는 예외적으로 왕세자가 사부를 예우하는 행례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왕세자와 사부의 상견례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원자와 보양관의 상견례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원자와 보양관의 자세한 의주는 숙종이 원자시에 보양관 宋浚吉(1606-1672)과 행한 기록에서 처음 찾을 수 있다.³⁵ 원자는 원당(堂內: 熙政堂 서쪽 별당) 동벽에 서쪽을 향하여 서고, 보양관은 서벽에 동쪽을 향하여 선다. 동쪽은 원자, 왕세자를 상징하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서쪽에 비해 더 높은 지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리 배치는 원자가 보양관보다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³⁶ 그러나 그 이후의 행례는 원자와 보양관의 존위가 역전된다. 원자는 보양관이 먼저 자리에 오르도록 기다리고, 그 뒤에 오른다. 원자가 보양관에게 먼저 두 번 절을 올리면 보양관이 두 번 답배한다. 보양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뜰에 내려서기를 기다리고 원자도 뒤이어 내려온다. 보양관이 문을 나가면 내시가 예가 끝났음을 알리고(禮畢), 비로소 원자는 물러난다. 실록에는 숙종이 5세의 나이였으나 마치 성인과 같이 예를 행하여 모두가 감탄하였다고 한다.

정조연간 문효세자의 보양관 상견례는 이와 달랐다. 『(文孝世子)輔養廳日記』의 행사 당일 기록에 의하면 원자가 동벽에, 보양관이 서벽에 위치하는 것은 같으나 원자가 보양관을 예우하는 행례는 행해지지 않았다. 즉 원자가 계단 앞에서 보양관이 먼저 오르고, 내리기를 기다린 후에 뒤따르는 의식이나, 원자가 보양관에게 먼저 절을 두 번 올리는 의식이 모두 생략되었다. 이는 문효세자가 만 두 돌이 채 되지 않아서 행례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³⁷ 의례가 변

33 왕세자와 사부의 상견례는 일찍이 세종연간 『五禮儀』에 수록되었다. 『世宗實錄』「五禮」嘉禮 王世子與師傅賓客相見儀; 『국조오례의』2 (법제처, 1981), pp.271-273.

34 이는 국왕과 왕세자가 참석하는 행사에서 왕세자의 자리가 국왕의 동쪽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점, 제례의 三獻禮에서 일반적으로 첫 잔은 국왕, 둘째 잔은 왕세자, 세 번째 잔은 영의정이 올리는 점 등을 미루어서도 알 수 있다.

35 『현종실록』 권 11 현종 6년(1665) 9월 3일(병술).

36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pp.9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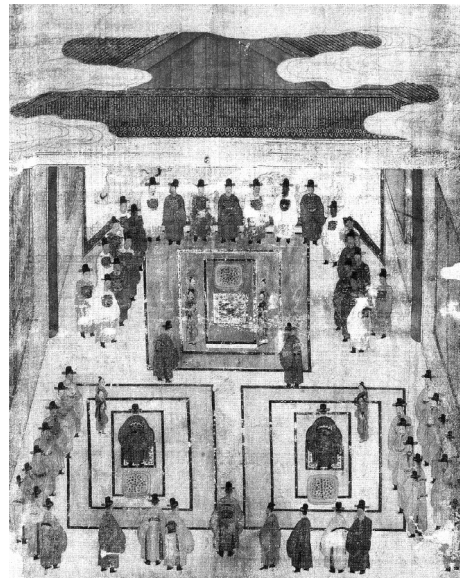
37 태어난지 8개월만에 상견례를 치른 사도세자의 경우에도 원자는 절하지 않고, 보양관만 單拜를 하였다. 『景慕宮輔養廳日記』(규 12836), 乙卯 九月 十一日(丁未)(1735.9.11)條. 정조의 둘째아들 순조의 경우는 7세에 상견례를 치렀기 때문에 원자가 먼저 두 번 절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다.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1796) 12월 1일(임신).

형된 동기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지만 그 결과 의례는 본래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보양관 상견례는 보양관만이 원자에게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이 의례의 전부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왕세자가 문무백관에게 朝參을 받는 의례와 유사하게 된 것이다.³⁸ 다시 말해 왕의 자손이 유학자 사대부를 스승으로 모시는 의식만이 아니라, 미래의 군주가 자신의 신하를 미리 조회하는 의식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견례는 불안정한 정국과 비정통한 원자의 출신이라는 상황 속에서 왕위 세습을 안전하게 도모하려는 정조와 정국을 주도하려는 대신들의 공조가 맺어진 의례였다. 원자가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보양관 상견례가 서둘러졌고, 의식에 비해 과분한 상전이 내려졌다. 정조는 당시 보양청 관리 뿐 아니라 대신, 규장각 각신, 승지 등 중심 관료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큰 반대가 없었던 것도 당시 상견례가 가진 군신 조회로서의 성격을 모두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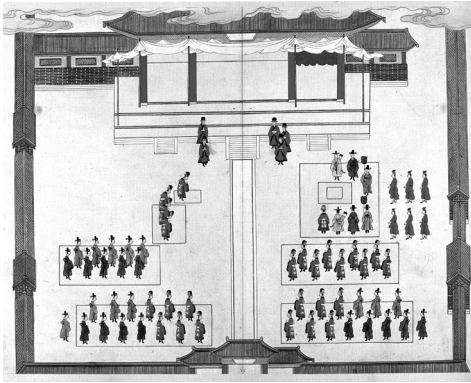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당시 문효세자 상견례가 가진 이러한 특수한 의미를 잘 보여준다. 대은원의 상견례 장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원자를 상단에 둔 구도이다(도 7). 왕실인물을 그리지 않는 전통에 의해 상단에 비어있는 사각형이 원자의 자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자를 향해 서있는 두 인물은 당시 보양관이었던 이복원과 김익이다. 『(文孝世子)輔養廳日記』의 의주에 의하면 원자의 자리는 동벽에 서향을 하고, 보양관의 자리는 서벽에 동향을 하고 마주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그림은 동쪽을 화면의 위쪽으로 상정함으로써 동서로 마주 본 의례를 상하 수직구도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궁중회화에서는 대부분 북쪽을 상단에 둔다. 참석자의 방위와 배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의례 안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왕세자에 관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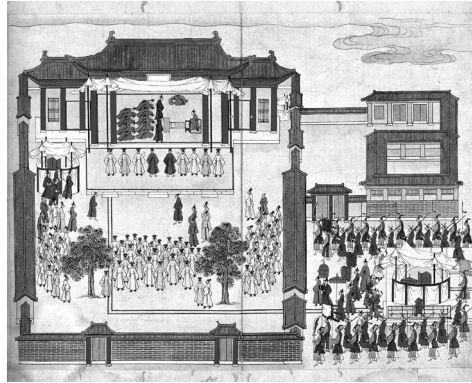


도 7 〈문효세자보양청계병〉, 제4첩의 大恩院 내부.

³⁸ 『國朝續五禮儀』 권3, 嘉禮 下, 王世子受朝參儀; 『국조오례의』 5 (법제처, 1982), pp.225-228.



도 8 《王世子入學圖帖》, 〈世子入學儀〉, 1817년, 지본채색, 33.8×45.2cm, 문화재연구소.



도 9 《受教圖帖》, 〈世子降階拜師傅賓客圖〉, 1817년, 지본채색, 45.5×57.7cm, 문화재연구소.

록화에서도 이러한 설정은 예외 없이 지켜졌다.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王世子入學圖帖》(1817)이나 왕세자의 관례 의식을 설명한 《受教圖帖》(1817년 무렵)에도 화면은 늘 북쪽을 상위로 상정하였고 왕세자의 자리는 전각 안에서 동쪽,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서쪽에 있는 스승과 마주하였다(도 8, 9).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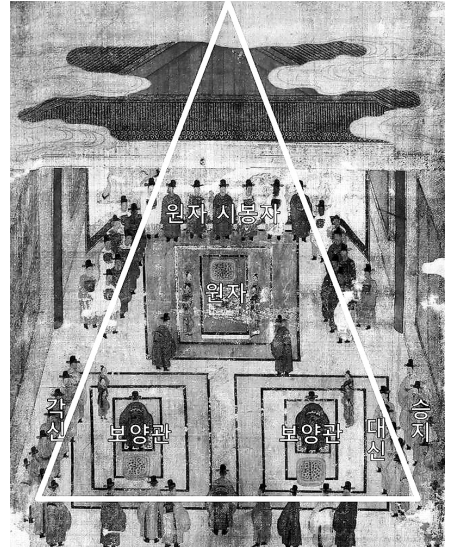
본래 원자와 보양관이 동서로 마주보는 설정은 왕세자가 師傅, 즉 스승을 뵈는 의례에서 비롯되었다. 왕세자는 미래의 군왕이기 때문에 위계적으로 국왕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국왕 없이 왕세자가 신하들을 조회할 때에는 왕세자가 북쪽에서 신하들을 남면한다.⁴⁰ 그러나 왕세지도 스승을 뵈 때에는 제자로서 예우를 갖추었다. 왕세자와 사부가 동서로 마주하는 것은 이들이 군신관계가 아닌 사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위의 상징성과 궁중회화의 관습을 전제했을 때,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이 동쪽을 위로 상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자를 상단에 두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실제 행사는 의주대로 원자와 보양관이 동서로 마주선 채 실행되었지만, 시각적 구도는 원자가 두 보양관 위에서 “南面”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대은원 의례 장면의 두 번째 특징은 원자를 정점으로 한 삼각구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는 두 명의 보양관은 안정된 삼각형을 이룬다. 그리고 이 삼각구도는 이들을 둘러싼 제신들

³⁹ 박정혜, 앞의 논문(2005), pp.10-52. 왕세자 관련 궁중기록화 중에 이처럼 북쪽을 상위로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663년의 〈時敏堂夜對之圖〉는 서쪽을 상위로 하여 송시열 등 시강원 문학이 남향하고 세자(현종)가 북향하는 예외적인 구도를 취했다.

⁴⁰ 『國朝續五禮儀』 권3, 嘉禮 下, 王世子受朝參儀; 『국조오례의』 5 (법제처, 1982), pp.225-228.

에 의해 확장된다. 원자 주위로는 원자궁 배속과 호위관 등 원자의 시봉자가 배열되었고, 보양관의 좌우에는 대신, 각신, 승지 등이 자리하였다. 좌목의 참석자 명단과 비교해보면 오른쪽 앞줄의 5명은 1품 대신, 뒷줄의 7명은 승정원 승지, 왼쪽의 9명은 규장각 시원임각신으로 추정된다(도 10).⁴¹ 보양관 좌우의 대신, 각신, 승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조의 명으로 이번 상견례에 특별히 참석하게 된 자들이다. 정권 실세이자 국왕의 측근으로 조정의 신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삼각 구도 안에서 원자는 그를 둘러싼 시봉자들에 의해 보호될 뿐 아니라 조정 신하로부터 받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 10 <문효세자보양청계병>, 제4첩의 大恩院 내부-표시.

이러한 자리 배치는 물론 행례의 실제 배치에 의거한 것이겠지만, 이를 삼각형의 구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회화적 고안이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평면적인 작법을 사용하였으나, 의례가 이루어지는 실내만은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반듯한 사각형 구획 안에 위치한 원자와 두 보양관의 자리와 달리 좌우의 신하들과 내시들은 원근법의 질서 안에서 사선으로 배열되었다. 의례 장면을 투시원근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이곳에는 실내라는 공간적 질서뿐 아니라 원자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가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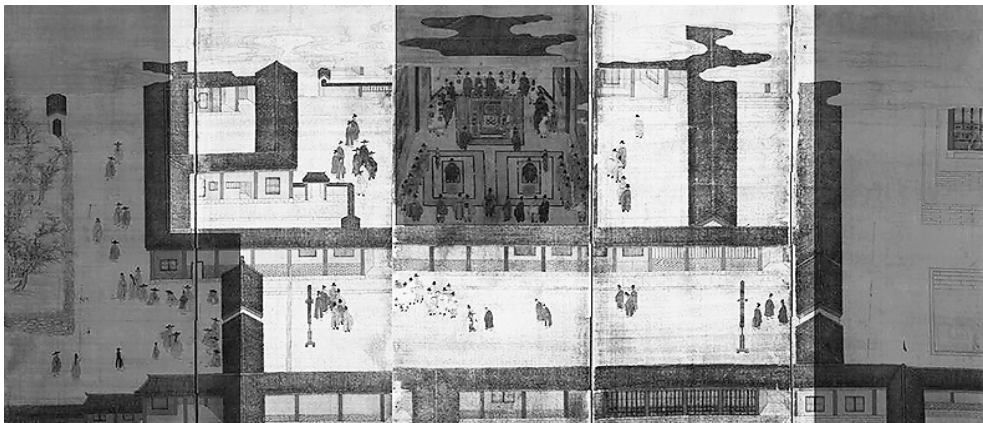
좌우의 신하들이 배치된 사선을 연결하면 그 정점엔 구름에 쌓인 붉은 대은원 지붕이 있다. 붉은 지붕의 박공은 구름에 가린 붉은 해, 즉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군주, 혹은 떠오르는 미래의 군왕인 원자를 연상시킨다. 흥미롭게도 참석자의 시에는 국왕 정조와 원자를 重輪(겹쳐지는 두 해)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발견된다. “상서로운 두 개의 태양(瑞日重輪)” “두 밝은 해가 나란하네(兩明并)” “重輪이 궁성에 떠오르는 것을 바로 보겠네(卽看重輪湧禁城)” 등의 시구가 그것이

⁴¹ 좌목에는 대신5명-각신9명-승지6명이 기록되어 있다. 왕세자의 왼쪽(화면의 오른쪽)이 오른쪽(화면의 왼쪽)보다 우위에 있는 자리이고, 앞줄이 뒷줄보다 높은 우위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다. 이들의 지위는 각 관리가 입었던 관복의 의제와도 일치한다. 즉 1품은 紅團領에 犀帶, 2품은 홍단령에 錦帶, 3품은 홍단령에 銀帶, 4품 이하의 靑團領을 입은 복제가 대신, 각신, 승지들의 지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김현승,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복식고증과 디지털콘텐츠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 117-131.

다.⁴² 우연하게 얻어진 붉은 박공이 문효세자, 혹은 정조를 상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붉은 정점을 가진 이중의 삼각 구도가 이날 상견례의 이중적 의미, 즉 제자가 스승을 맞이하는 의례인 동시에 원자가 미래의 군신 관계를 맺는 첫 의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구도를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과 연결시켜본다면, 원자의 안전한 세습은 정조와 신하들 간의 균형 잡힌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V. 배경 공간의 상징성: 왕실과 백성에까지 미치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화면의 상당수를 배경에 할애하였다. 제4첩 상단의 상견례 장면 이외는 사실상 의례와 상관없는 배경에 해당한다. 이 배경은 일차적으로 상견례가 일어난 곳, 창덕궁 대은원 주변의 환경을 전달한다. 대은원을 둘러싼 공간, 즉 대은원 殿庭 부분(제5첩, 4첩 하단, 3첩)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화면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기본은 실제 배치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배경에는 궁궐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도 있다. 좌우 궐 밖의 공간(제2첩, 6첩)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상징적 공간으로서 의례가 다 전달하지 못한 상견례의 숨은 의미를 드러낸다. 이 두 배경이 가진 의미와 상징을 자세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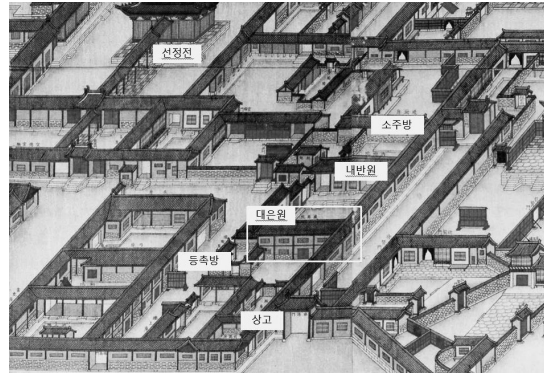


도 11 〈문효세자보양청계병〉, 제2-6첩의 대은원 전정표시.

42 『정조시대 궁중행사도』 II, pp. 71-173. 서명선의 차운시, 이휘지의 차운시, 김치인의 차운시의 구절. 세자가 임금의 뒤를 이어 선정을 베푸는 것을 ‘重輪’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미 관용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대은원을 “L”형으로 둘러싼 공간은 실제 대은원 주변을 반영하되, 중심의 의례 장면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도 11). <東闕圖>를 참고하면 제3첩 상단의 건물은 燈燭房과 司謁房, 제5첩 상단의 건물은 內班院과 燒廚房임을 알 수 있다(도 12). 제3~5첩 하단 좌우에는 神佑門과 端陽門도 표시되었다. 그러나 <동궐도>와 다른 점도 적지 않다. <동궐도>에 있는 대은원 남쪽의 창고(廂庫, 樓廂庫)와 북쪽의 廁間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중요도가 낮은 건물은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화면의 가장 하단을 가로지르는 담장은 본래 왼쪽이 개방되어 다른 행각으로 통하는 길이 놓여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막혀서 화면의 반듯한 기단이 되어 주었다. 즉 건축 배경은 기본적으로 대은원 주변의 관아를 재현하되, 대은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기 위해 생략과 변형을 감행하였다.⁴³

한편 대은원 전정에 그려진 인물들은 이 공간이 중심의 의례 장면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곳에는 紅團領, 靑團領에 관모를 쓴 당상관, 당하관부터 붉은 直領에 有閣平頂巾을 쓴 아전과 天翼에 갓을 쓴 무관까지 다양한 복식의 관리들이 배치되었다(도 13). 이들은 상견례 속 인물처럼 대열을 이루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향해 서있다. 이는 이들이 상견례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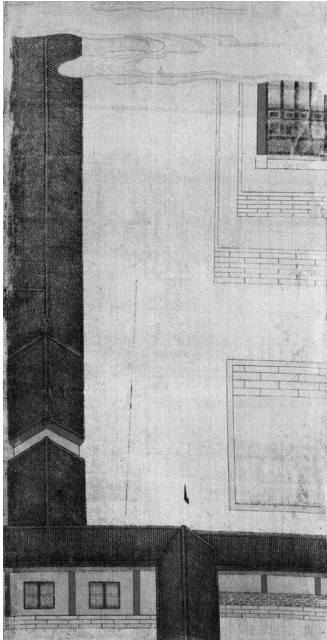


도 12 <東闕圖>, 대은원 부분(전각명 표기).



도 13 <문효세자보양청계명>, 제2-6첩의 대은원 전정의 군상들(3-5첩).

⁴³ 신우문과 단양문 앞에 障扉(문가리개)은 대은원을 중심에 두는 구도를 강화한다. <동궐도>에는 신우문 바깥에 장벽이 놓여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문 안 쪽에 놓여 있다. 본래 장벽(문가리개)의 용도는 밖의 잡귀를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장벽의 위치는 작은 차이지만 어디가 보호되어야 할 '안'이고 어디가 '밖'인지를 보여준다. 즉 <동궐도>에서 대은원 권역은 편전이나 침전 등 궁중에서 상대적으로 '밖'이었던 데 비해 이 그림에서는 '안'쪽, 즉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다.



도 14 <문효세자보양청계병>, 제2첩.

한 직급의 인물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대은원 전정은 행사 주변 공간과 주변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중심 의례 장면을 부각시키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대은원 전정이 실재를 어느 정도 반영한데 비해, 대은원 궐 밖의 좌우 공간(제2첩, 제6첩)은 실제 궁궐배치와는 거리가 멀다. <동궐도>에 의하면 단양문을 끝으로 남쪽으로는 행각이 이어지지 않는다(도 12). 그러나 제2첩에는 석축을 올린 건물이 반쯤 그려져 있다(도 14). 그렇다면 이 건물은 무엇일까. 제2첩의 이 전각은 특정 전각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2단으로 높게 쌓아 올린 석축 기단은 궁궐 안에서도 정전과 일부 편전에만 사용되었다. 즉 이 건물은 궁궐 안의 일반 행각이 아니라 국왕의 정전임을 표시하였다고 추측된다. 이 공간에 아무도 그려지지 않은 것은 왕실 인물을 재현하지 않는 전통과 관련지을 수 있다. 즉 이 공간은 왕실을 대유한다고 할 수 있다.



도 15 <문효세자보양청계병>, 제6첩.

제6첩과 2첩은 대조를 이룬다. 실제로는 신우문을 지나면 대은원 북쪽으로 熙政堂, 大造殿을 비롯하여 궁궐의 편전과 침전, 후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제6첩에는 궁궐 대신 겨울나무가 있는 돌담이 있다(도 15). 이들은 실제가 아닌 회화적으로 고안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궁궐 내 대부분의 담이 벽돌로 쌓은 후기와를 얹은 전축담인 것과 달리 이곳에 그려진 것은 私家에서나 볼 수 있는 돌로 쌓은 막돌담이다. 이곳은 대은원 안과는 다른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돌담 안의 겨울 나무와 인물들이 쓴 방한모는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낸다. 대은원 안이 의례가 진행되는 1784년 1월 辛丑(1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가진 동시에 이를 뛰어넘는 의례의 초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곳은 어떤 특정한 날짜는 규정할 수 없지만 사계절의 흐름이 있는 자연적 시간, 일상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인물들 역시 궁궐 밖에서나 볼 수 있는 자들이



도 16 <문효세자보양청계명>, 제6첩의 風俗 장면.



도 17 <문효세자보양청계명>, 제6첩의 역업 착용한 인물.

다. 문무 관리는 관복 대신 철릭과 도포를 입은 차림새를 하였다. 無角平頂巾을 쓴 서리, 具軍服을 입은 포졸 등 하급관리와 머리를 뚫은 남자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서인이 그려졌다(도 3, 도 16).⁴⁴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거나,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대은원 안의 인물들이 초상화적인 사실성으로 개별 인물들을 재현하였고, 대은원 전정의 인물들이 관복을 갖춰 입고 대기하고 있다면, 이곳의 인물들은 각계 각층의 인물들이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그림 속에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동시에 가장 익명성이 두드러진 집단, 이들을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백성이지만 시속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인물들은 관모 아래에 방한모인 額掩을 착용하였다(도 17). 액염은 이마만을 덮는 짧은 방한모이다. 그러나 실상 당시에는 액염이나 귀를 가리는 耳掩이 아니라, 어깨를 덮거나 심지어 허리까지 닿는 揮項이 유행하였다(도 18). 정조는 휘양의 유행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족제비털(貂鼠)의 가격이 급등하자, 방한모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⁴⁵ 이곳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휘양이 아닌 액



도 18 휘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

⁴⁴ 복식 고증은 김승현, 앞의 논문, pp. 80-116 참조.

⁴⁵ 김성희, 「조선시대 방한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9; 『홍재전서』 169권 「일득록」 9, 정사 4.

업을 착용한 모습은 실재가 아닌 권장해야하는 바에 가깝다. 즉 이곳의 백성은 잘 통치되고 안전하게 규율된 백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비와 같이 제2첩과 6첩의 두 공간은 각각 왕실과 백성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이 두 공간은 왜 상견례 좌우에 배치되었을까. 보양관 이복원이 서문에 쓴 구절이 실마리가 되어준다. 그는 상견례의 의식이 잘 치루어져 임금께서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화합하는 기운이 궁전에 넘치고, 기쁨의 함성이 조정과 민간에까지 이르렀다.”⁴⁶ 즉 이 두 공간은 상견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상징한다. 다시 말해 상견례가 단지 일부 신하나 원자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왕실과 조정, 민간의 화합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1784년 1월 15일, 정조의 첫 아들인 문효세자가 보양관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는 상견례를 그린 병풍이다. 보양관이 서문을 쓰고 보양청에 계병 한 좌를 두었으니 이 병풍의 제작은 보양청에서 주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병에 연시를 지어 올리고 실제로 병풍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정승이었던 보양관 2명을 포함한 7명의 정 1품 대신들이었다. 이처럼 특정 관청이나 조직이 아니라 대신들이 계병을 발의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이는 이 계병이 조직의 결속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 행사에 대한 최고 관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신들이 이 계병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원자 정호 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할 역할과 관련이 있다. 문효세자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원자로 추대되었는데 여기에는 소론 대신들의 역할이 컸다. 처음에는 원자 정호를 미루던 정조도 일단 일이 결정되자 원자 보양관으로 양 정승을 임명하였으며 대신들을 모두 상견례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유례없는 조치를 내렸다. 원자의 보양관 상견례는 결국 순조로운 왕권 계승을 바라는 정조와 이 과정에서 공로를 선점하려는 대신들의 문제의식이 만난 상징적인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⁴⁶ 『조선시대궁중기록화연구』 II p. 70. 序文 “(전략) 三元開泰 日辰吉良 禮儀不愆 天顏嘉悅 協氣溢於宮殿 歡聲達於朝野也(후략)”이러한 내용은 차운시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히 김상철의 시에 “무성한 상서로운 기운 궁성에 가득하고(葱籠瑞靄滿宮城) “백성과 더불어 노래하며 송축하네(謳歌聊與野人并)”와 같은 구절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같은 책, p. 172. 金尙喆의 차운시

대신들이 계병을 제작한 목적은 계병 제1첩에 있는 서문과 연작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서문에 의하면 보양관 이복원과 김익을 비롯한 7명의 대신들은 상견례에 참석한 후 별도로 빈청에 모여 선찬을 나누었으며 이날의 행사를 기념하는 연작시를 짓고, 이를 계병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하였다. 서문과 연작시는 원자의 성장을 축원하고 이 행사가 왕실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경사임을 노래하였다. 연작시의 공적인 형식과 내용은 이 시가 비단 대신들 간의 소회일 뿐 아니라 정조를 의식한 발언임을 보여준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의 내용과 표현은 서문과 연작시가 담지 못한 이 계병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재현하였다. 상견례는 동쪽에는 원자, 서쪽에 보양관이 자리하여, 세자가 스승을 모시는 의례의 구도를 따랐다. 그러나 이 병풍에서는 예외적으로 동쪽을 상위에 두는 구도를 취하였다. 그 결과 원자와 보양관이 동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원자가 두 보양관 위에 있는 삼각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삼각 구도와 그 정점에 있는 구름에 가린 붉은 박공은 미래의 군주가 신하들에 의해 받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견례 밖의 공간은 행사가 일어난 주변을 넓게 조망해줄 뿐 아니라 이 행사의 의미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제2첩의 석축이 높은 전각은 ‘왕실’, 제6첩의 돌담과 시속 인물은 ‘백성’의 대유적 표현이라고 짐작된다. 결국 이는 본 행사가 왕실과 조정,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사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상견례 행사는 어린 원자와 그를 보살필 보양관의 만남일 뿐 아니라 미래 왕위 계승자인 원자와 그를 추대한 대신들 간의 만남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상견례에 대한 참석자의 기념물일 뿐 아니라 군신간의 공조를 확인하는 징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이 군신간의 소통 매체임은 분명하지만, 정조의 개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여전히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정조가 계병의 관례를 轉用하여 신하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궁중행사도를 발의하게 한 경우는 이 병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조 초기에 제작된 문효세자의 탄생, 교육, 책례 등을 다룬 계병들은 이와 같은 경로로 제작되었다. 다시 말해 정조가 문효세자의 위상강화를 위해 궁중회화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문효세자는 결국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지만, 정조의 궁중 회화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문효세자와 관련된 정조 전기의 계병이 후에 화성원행도와 같은 거대하고 조직적인 국가 행사도를 제작하는 전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정조의 궁중회화 정책에 있어서 뿐 아니라, 왕세자 관련 회화의 발달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다. 세자의 공식 의례를 직접 묘사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세자가 등장하는 그림은 대부분 經筵 장면에 불과했으며, 세자의 책례를 기념한 계병에도 책

레가 아닌 산수화 등의 감상화를 대신 그렸다. 정조 전기의 원자의 상견례와 세자의 책례를 묘사한 궁중행사도의 제작은 영·정조 시기 왕세자·왕세손 관련 의례가 급증하는 경향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것이며, 이후 19세기 孝明世子(1809-1830)를 대상으로 한 회화의 성행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의 의미를 정조의 궁중 회화 그리고 조선 후기 왕세자 관련 회화로 확장하는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주제어(key words)**_정조(King Jeongjo), 문효세자(Crown Prince Munhyo), 계병(documentary painting), 궁중행사도(screen painting), 기록화(court painting in the Joseon dynasty)

■ 투고일 2016년 12월 2일 | 심사개시일 2016년 12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월 17일 ■

참고문헌

1. 사료

『國朝五禮儀』

『景慕宮輔養廳日記』

『續大典』

『承政院日記』

『正祖實錄』

『中宗實錄』

『日得錄』

『日省錄』

『顯宗實錄』

『弘齋全書』

2. 한국어문헌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

김성희, 『조선시대 방한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현승,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복식고증과 디지털콘텐츠화」,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민길홍, 「〈文孝世子 輔養廳契屏〉-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행사」, 『미술자료』80, 2011.

박은순, 「朝鮮時代 王世子冊禮儀軌班次圖研究」, 『한국문화』14, 1993.

박정혜, 『조선시대 왕세자와 궁중기록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005.

박정혜,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유혜선, 장연희, 윤은영, 「〈기축진찬도〉 채색안료분석」, 『조선시대 궁중행사도』I, 국립중앙박물관, 2010.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이강근, 『조선왕조의 궁궐건축과 정치-세자궁의 변천을 중심으로』, 『미술사학』22, 2008.

천주현, 윤은영, 안지윤, 김효지,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의 채색기법」, 『조선시대 궁중행사도』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최성환,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황정연, 「受教圖로 본 조선시대 왕세자의 冠禮와 행사기록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조선왕조 행사기록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국문초록

본 논문은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의 회화적 분석과 역사적 고증을 통해 당시 궁중회화의 정치적 의미에 집중한 논문이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1784년 1월 15일, 정조의 첫 아들인 문효세자가 보양관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는 상견례를 그렸다. 보양관이 서문을 쓰고 보양청에 계병 한 좌를 두었으니 이 병풍의 제작은 보양청에서 주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병에 연시를 지어 올리고 실제로 병풍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정승이었던 보양관 2명을 포함한 7명의 정 1품 대신들이었다. 이처럼 특정 관청이나 조직이 아니라 대신들이 계병을 발의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이는 이 계병이 조직의 결속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 행사에 대한 최고 관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신들이 이 계병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원자 정호 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할 역할과 관련이 있다. 문효세자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원자로 추대되었는데 여기에는 소론 대신들의 역할이 컸다. 처음에는 원자 정호를 미루던 정조도 일단 일이 결정되자 원자 보양관으로 양 정승을 임명하였으며 대신들을 모두 상견례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유례없는 조치를 내렸다. 원자의 보양관 상견례는 결국 순조로운 왕권 계승을 바라는 정조와 이 과정에서 공로를 선점하려는 대신들의 문제의식이 만난 상징적인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대신들이 계병을 제작한 목적은 계병 제1첩에 있는 서문과 연작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서문에 의하면 보양관 이복원과 김익을 비롯한 7명의 대신들은 상견례에 참석한 후 별도로 빈청에 모여 선찬을 나누었으며 이 날의 행사를 기념하는 연작시를 짓고, 이를 계병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하였다. 서문과 연작시는 원자의 성장을 축원하고 이 행사가 왕실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경사임을 노래하였다. 연작시의 공적인 형식과 내용은 이 시가 비단 대신들 간의 소회일 뿐 아니라 정조를 의식한 발언임을 보여준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의 내용과 표현은 서문과 연작시가 담지 못한 이 계병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재현하였다. 상견례는 동쪽에는 원자, 서쪽에 보양관이 자리하여, 세자가 스승을 모시는 의례의 구도를 따랐다. 그러나 이 병풍에서는 예외적으로 동쪽을 상위에 두는 구도를 취하였다. 그 결과 원자와 보양관이 동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원자가 두 보양관 위에 있는 삼각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삼각 구도와 그 정점에 있는 구름에 가린 붉은 박공은 미래의 군주가 신하들에 의해 받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견례 밖의 공간은 행사가 일어난 주변을 넓게 조망해줄 뿐 아니라 이 행사의 의미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제2첩의 석축이 높은 전각은 '왕실', 제6첩의 돌담과 시속 인물은 '백성'의 대유적 표현이라고 짐작된다. 결국 이는 본 행사가 왕실과 조정,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사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상견례 행사는 어린 원자와 그를 보살필 보양관의 만남일 뿐 아니라 미래 왕위 계승자인 원자와 그를 추대한 대신들 간의 만남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은 상견례에 대한 참석자의 기념물일 뿐 아니라 군신간의 공조를 확인하는 징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with a focus on *Screen Painting of Crown Prince Munhyo Having an Introduction Ceremony at Boyangcheong (1784)*

Yoo Jaebin*

This study conducts a visual analysis and historical research on *Screen Painting of Crown Prince Munhyo Having an Introduction Ceremony at Boyangcheong*, focusing mainly 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court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screen painting depicts an introduction ceremony on the fif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of 1784 when Crown Prince Munhyo (1782-1786), the first son of King Jeongjo (r. 1776-1800), met Boyanggwan officials who would oversee his education. Given that a Boyanggwan official wrote a preface to the painting and also that the Boyangcheong bureau housed one of eight sets of the screen painting, one might argue the bureau supervised the execution of the screen. However, it was seven court officials ranking 1a, including two minister-cum-Boyanggwan officials, who presented a series of linked poems and distributed seven sets among themselves. Considering that a ceremonial screen painting was commissioned traditionally by a particular bureau or organization, this unusual commissioning by state officials suggests the motivation was not to solidify an organization, as was customary, but likely was to represent the political position the highest-ranking officials shared with regard to the royal ceremony.

* Hongik University

The background surrounding the state officials' sponsorship involves the roles they played in selecting the heir apparent to the throne. It was due to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officials belonging to the Soron faction that Prince Munhyo, just 3 months old, was proclaimed Crown Prince. Once the proclamation was officially made, King Jeongjo, though having been hesitant at first, issued unprecedented orders, for example, to appoint two ministers as Boyanggwan officials for the Crown Prince and to require all state officials to attend the introduction ceremony. It is thus presumed that the ceremony marks a symbolic coincidence of interests between King Jeongjo who longed for a smooth royal succession and officials who claimed credit for the installation of the Crown Prince.

The preface and linked poems on the first panel of the screen clearly state the motivation behind the commission. According to the preface, a total of seven officials including Boyanggwan Yi Bokwon (1719-1792) and Kim Yik (1723-1790) held another banquet after the introduction ceremony, composed a series of poems to commemorate the event, and commissioned screen paintings in multiple sets for each participant to possess one. Wishing for the sound growth of the Crown Prince, the words on the screen eulogize the ceremony as a blissful event that both the royal house and the entire country should celebrate. The public form and content of the serial poems disclose that they are not merely about personal impressions but in fact speeches mindful of the King's readership.

The pictorial content and expressions illustrate the motivation in a more concrete manner than the preface and poems do. Generally, an introduction ceremony adheres to a ritualistic seating plan where the Crown Prince in the east shows deference to his tutors, Boyanggwan officials, in the west. This screen painting however takes an atypical orientation in that the east side is assigned the upper part of the screen. As a result, a triangle composition where the Crown Prince sits above two Boyanggwan officials replaces the ritual plan in which the prince and the tutors are aligned on an east-west axis. In addition, a red gable, partly clouded but clearly placed in the apex of the triangle, symbolizes a future monarch to which the subjects will submit themselves. The space outside the ceremonial place adds to the significance of the event beyond merely presenting a backdrop: the palace building above tall masonry in the second panel contrasts the ordinary stonewalls and figures on the sixth panel, the distinction which seems to be employed for synecdochism to represent the royal house and common

people, respectively. In consequence, the screen painting displays a blissful event that involves the royal house, the court, and the whole society.

The introduction ceremony is not only a meeting between a young Crown Prince and officials who will look after him, but also, as it turns out, an encounter between a future King and the subjects who crowned him. In this vein, *Screen Painting of Crown Prince Munhyo* is not merely a pictorial souvenir for participants in the ceremony, but also an emblem that reaffirms the political partnership between sovereign and subject.